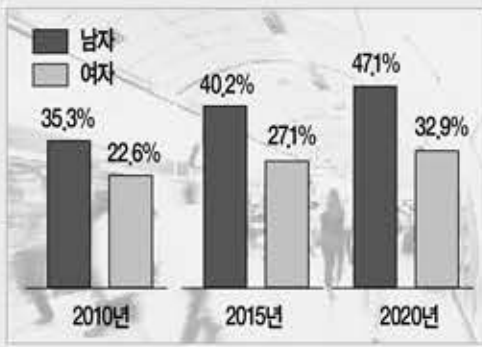


## 25~49세 남자 절반 '미혼'



▲ 남녀 25~49세 미혼 비율. 자료=통계청

한국 25~49세 남성의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 여자는 67.1%로 집계됐다. 25~49세 남성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미혼이라는 의미다.

통계청은 혼인 경험을 '조사 시점에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 이혼 또는 사별한 경험 여부'로 정의해 조사했다. 2020년 혼인 경험 비율은 2010년과 비교해 남자는 11.8%포인트(p), 여자는 10.3%p 각각 감소한 수치다. 10년 사이 남자와 여자 모두 미혼 비율이 10%p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자는 30~34세의 혼인 경험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15.7%p)했다. 여자도 30~34세(-16.9%p)가 비율이 가장 많이 줄었다.

2022년 기준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1970년 29만5,000건 대비 10만3,0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22년 기준 3.7건으로 1970년 대비 5.5건 감소했다.

결혼이 줄면서 출생아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12년(48만5,000명) 대비 23만6,000명 감소했다. 여자가 가입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2년(1.30명)보다 0.52명 줄었다.

## 수도권 '전력난'에 건설현장 공사도 중단

최근 한국에서 수도권 전력 공급 부족으로 건설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시행사 A업체는 최근 수도권 내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접수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공급을 신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사진=뉴스1

A업체 관계자는 "전기 부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순항을 위한 지표인 '건축허가' 가 나오지 않아 착공할 수 없게 되면 브릿지 대출 및 PF로 조달한 사업자들은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인허가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한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들의 전기 사용 신청이 폭증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공급할 전기가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착공을 못하는 사례가 하나 둘 감지되고 있어 건설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은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반면, 경기도 전력자급률은 58% 수준에 그친다.

## 은퇴 후 연금 '소득대체율', OECD 권고치 밑돌아

한국인들의 은퇴 후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전 세계 40개 보험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세계 컨설팅기업 맥킨지에 의뢰해 조사한 '글로벌 보장 격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OECD 권고치인 65~75%보다 20~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인 58%와 비교해도 11%포인트 낮았다.



▲ 국민연금이 연금 체계별 소득 대체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진=연합뉴스

세부적인 연금 체계별 소득 대체율의 경우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퇴직연금(12%), 개인연금(9%) 순서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치(25~30%)에 부합했지만 퇴직연금(20~30%)과 개인연금(10~15%)은 권고치에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 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